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미 증시, 7월 PCE 안도감에도, 엔비디아 실적 대기심리 등으로 소폭 약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6일(수) 미국 증시는 7월 PCE 물가 컨센 부합에 따른 미국 장기물 시장 금리의 상방 압력이 제한됐음에도, 장 마감 후 발표 예정인 엔비디아(-1.6%) 실적을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가 전개된 여파로 소폭 약세 마감(다우 -0.21%, S&P500 -0.02%, 나스닥 -0.0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2%).

7월 PCE는 전년동월대비(YoY), 전월대비(MoM) 모두 헤드라인과 코어가 컨센서스에 부합. 7월 미-이란 군사충돌 재개 이후 시장에서 잠재적으로 우려했던 인플레이션 재가속화 신호가 나타나지 않은 모습. 이처럼 PCE 물가 상방 쇼크가 없었다는 점은 미국 10년물, 30년물 등 장기물 금리 급등 리스크가 확산될 여지를 낮추고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이전보다 할인율 부담이 덜해질 수 있음을 시사.

이제 매크로 상 시장의 관심은 28일(한국시간 금요일 밤)에 예정된 잭슨홀 미팅으로 이동할 예정. 다만, 그전에 주식시장 고유의 대형 이벤트인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이벤트 소화가 잭슨홀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상태.

다행히도 장 마감 후 발표한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은 기대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시현. 2분기 매출액(962억 달러 vs 컨센 922억 달러 상회), 매출총이익률(GPM, 75.0% vs 컨센 75.0% 부합)이 컨센을 상회했기 때문. 주력 사업인 데이터센터(890억 달러, YoY +117% vs 컨센 858억 달러)도 하이퍼스케일러(487억 달러, YoY +102%) 뿐 아니라, AI 클라우드(403억 달러, YoY +138%)까지 호조세를 기록하면서 서프라이즈를 시현한 점도 긍정적.

3분기 GPM 가이드스(74.0% +/- 50bp vs 컨센 75.0%)가 컨센을 소폭 하회하기는 했으나, 컨퍼런스콜에서 2028 회계연도 매출 증가율 가이드스를 70.0%(YoY vs 컨센 44.8%)로 대폭 상향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실제 수요는 70% 이상이나, 공급 제약을 고려해 70%로 제시. 이 수요에는 소버린 AI, 네오클라우드 포함).

2028년까지 공급 병목 현상, AI 수요 지속성을 확인시켜준 것이며, 이 덕분에 엔비디아는 시간외에서 4%대 강세를 시현 중에 있음.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HBM, DRAM 등 메모리 수요 가시성 및 메모리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을 높여준 만큼, 한동안 불안감이 높았던 주도주인 반도체의 투자심리는 호전 국면에 돌입할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 하락 및 유가 약세 속 반도체 저가 매수세 유입, 건설, 은행, 전력기기, 백화점 등 개별 이슈에 따른 여타 업종 강세에 힘입어 전약후강의 장세로 마감(코스피 +0.97%, 코스닥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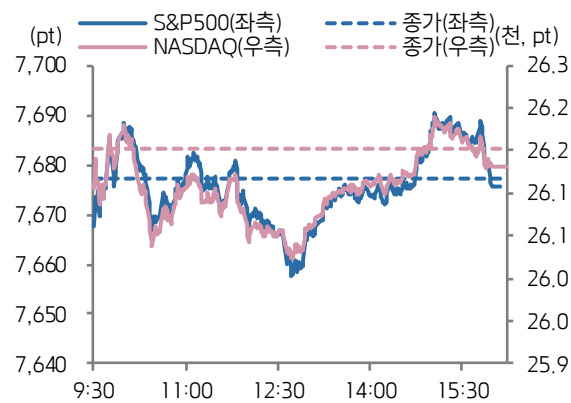
금일에는 7월 PCE 안도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 4%대 강세, 마이크론 및 샌디스크 시간외 3%대 강세 등 엔비디아 효과에 힘입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에도 업종 수익률 온기가 확산이 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에 대한 수급 집중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난 5~7월에 비해 8월 들어 업종별 순환매 장세 색깔이 짙어지고 있다는 전제는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추후에도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 선택지가 다양해질 가능성을 계속 열고 가는 것이 적절.

따라서, 외국인 수급 개선에도 주가는 코스피에 뒤쳐진 소매/유통, 증권(상기 두개 업종은 8월 이후 순매수 확대 지속), 조선(최근 5거래일 연속 순매수)과 같은 업종에 여전히 주목해야 한다는 기존 관점을 유지(8월 이후 코스피 상승률 +3.3% vs 소매/유통 -2.2%, 증권 -2.9%, 조선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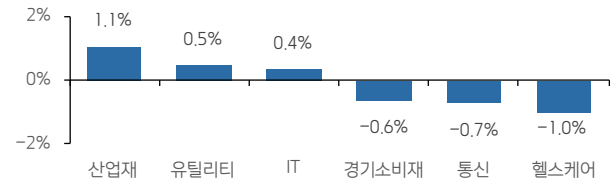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는 3분기 실적 시즌으로 시장의 실적 시계추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업종 전략에 활용해볼 만한 시점. 이런 관점에서 사실상 2분기 실적시즌 종료 시점인 8월 14일 이후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변화율이 개선되고 있는 에너지(8월 14일 대비 8월 26일까지의 3분기 컨센서스 변화율 +11.4%), 기계(+3.5%), IT가전(+2.3%), 철강(+2.2%), 운송(+1.6%)과 같은 업종도 관심 업종 리스트 상위권에 올려놓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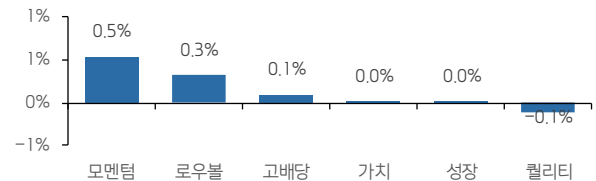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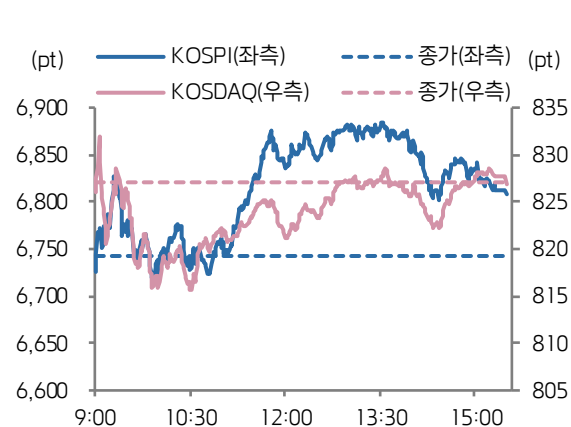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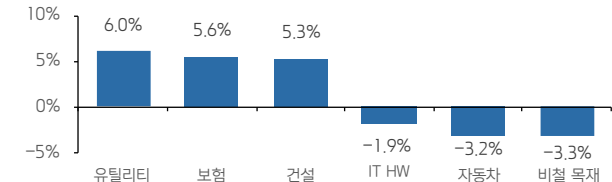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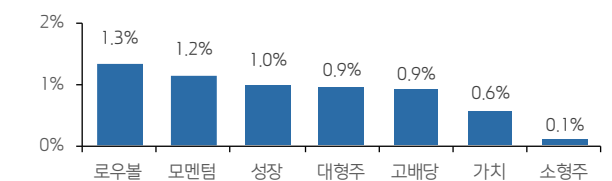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13.45	+1.15%	+15.61%	GM	86.33	+0.61%	+6.64%
마이크로소프트	496.37	+0.95%	+3.29%	일라이릴리	1,189.41	-3.59%	+11.21%
알파벳	342.00	-1.43%	+9.41%	월마트	104.34	-0.99%	-5.75%
메타	576.14	+1.07%	-12.56%	JP모건	356.50	-0.05%	+12.21%
아마존	260.28	-0.3%	+12.76%	엑손모빌	158.19	-1.53%	+34.09%
테슬라	345.82	-1.26%	-23.1%	세브론	200.21	+0.16%	+35.03%
엔비디아	209.66	-1.59%	+12.56%	제너럴일렉트릭	104.34	-1%	-5.8%
브로드컴	355.59	-0.32%	+3.12%	캐터필러	821.93	+1.31%	+44.35%
AMD	480.93	+0.37%	+124.57%	보잉	212.09	+0.48%	-2.32%
마이크론	938.40	+0.58%	+228.98%	넥스트에라	84.22	+0%	+6.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808.21	+0.97%	+61.56%	USD/KRW	1,384.55	+0.04%	-3.82%
코스피200	1,071.16	+0.99%	+76.76%	달러 지수	99.14	+0.22%	+0.83%
코스닥	826.87	-0.03%	-10.65%	EUR/USD	1.17	-0.21%	-0.81%
코스닥150	1,433.90	-0.36%	-7.33%	USD/CNH	6.72	+0.08%	-3.63%
S&P500	7,675.70	-0.02%	+12.13%	USD/JPY	159.31	+0.08%	+1.66%
NASDAQ	26,130.20	-0.08%	+12.43%	채권시장			
다우	53,463.88	-0.21%	+11.24%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VIX	15.21	-1.55%	+1.74%	국고채 3년	3.817	-0.9bp	+86.6bp
러셀2000	3,005.90	-0.14%	+21.11%	국고채 10년	4.282	-3.6bp	+89.7bp
필라. 반도체	11,611.24	+0.2%	+63.93%	미국 국채 2년	4.209	+3.5bp	+73.6bp
다우 운송	21,583.06	+0.59%	+24.35%	미국 국채 10년	4.647	+1.8bp	+48bp
상해종합	3,912.52	+0.59%	-1.42%	미국 국채 30년	5.167	+0.2bp	+32.3bp
항셍 H	8,533.84	+1.05%	-4.26%	독일 국채 10년	3.234	+3.3bp	+37.9bp
인도 SENSEX	77,472.94	-0.24%	-9.09%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Eurostoxx50	6,470.74	+0.23%	+11.73%	WTI	82.23	-0.16%	+44.39%
MSCI 전세계 지수	1,149.93	+0.03%	+13.34%	브렌트유	87.84	-0.84%	+44.35%
MSCI DM 지수	4,972.27	-0.07%	+12.23%	금	4,653.30	-0.88%	+3.47%
MSCI EM 지수	1,717.10	+0.76%	+22.27%	은	68.03	-0.96%	-3.65%
MSCI 한국 ETF	179.18	-0.54%	+84.3%	구리	659.95	-1.71%	+16.15%
디지털화폐				BDI	2,926.00	+1.53%	+55.89%
비트코인	78,444.76	+0.31%	-10.5%	옥수수	536.50	+2.48%	+16.5%
이더리움	2,472.06	+1.46%	-16.98%	밀	748.25	+6.4%	+32.49%
				대두	1,266.00	+2.28%	+18.93%
				커피	322.15	-3.98%	+2.4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26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